

기도의 달

믿음성장과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기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새로운 생명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September 11,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마가복음 2:1-12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542장 - 구주 예수 의지함이 (통일찬송가 340장)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구은강 집사, 최내권 집사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가 348장)
삶과 세상으로	* 찬 양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후서 1:1-12

사역자들의 자랑 - 인내와 믿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9월 “기도의 달”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기도합니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성장/성숙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합니다.
- PCoP 사역 협력 Rummage Sale (9/17)을 위해 9/11까지 필요한 물품을 모아 주십시오. 교회 건물 미화(페이트 작업 및 섬김의 교회 배너 설치)에 제안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기도 가정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과 직장, 자녀들과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9월의 사역 - 성장/성숙 주간(11-17) 소금/빛 된 주간(18-24)
선교주일(25) 선교 주간(25-10/1)

♥ 9월 생일축하 ♥ 이정운(30)

기도제목

1. 여름방학을 마친 학생들의 학업과 전 인격적인 성장
2.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건강과 평안
3.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천국을 향한 소망과 평안
4. 교회 사역의 변화와 건강한 성장
5. 중고등부 전임사역자 청빙과 Youth Ministry 성장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9/11	9/18	9/25	10/2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구 민집사
주일헌금위원	9/11	9/18	9/25	10/2
	구은강집사/최내권집사		유덕하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9월			10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 사무엘상 13:13-14

다윗은 사사로운 욕심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경책을 경청했다.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거짓과 타협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 고난을 당할 때, 괴롬을 당할 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어려운 문제도 거뜰히 헤쳐 나간다. 이제 어떤 사역이든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일을 하다가도 뭔가에 막히면 다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된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 마가복음 2:1-12

중풍병을 앓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

네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수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누운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했을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나?

우리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 마가복음 2:1-12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 밖에까지 가득했다. 그럼에도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 채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친구들은 침상을 어깨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지붕에 침상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내고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다.

이렇게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이르렀다. 과연 그 병자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마비된 자신의 팔과 다리를 손으로 만지며 고쳐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다 나았으니 두 다리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그러데 예수님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신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웬 죄 사함인가?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찌르신다. 바로 그 본질을 다루신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앓고 있는 질병과 그 근원이 죄임을 보신 것이다. 물론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가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의 경우이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선포하셨다. 중풍병자는 그 질병의 뿌리를 해결 받았으므로 자동적으로 낫게 된다. 드디어 그는 일어나 자신이 실려 왔던 침상을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가게 된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셨다.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찾아온 분은 바로 하나님 이셨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찾아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찾아야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의 뿌리까지도 해결된다. 네 친구들이 찾아온 예수님은 하나님 이셨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해결 받았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그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을 찾으며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까지도 해결해주신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환난은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옵니다.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진짜 환난을 당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편안할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온다는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 시 50:15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환난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면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환난은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이지만, 영적으로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이것을 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 롬 5:3-4**

환난을 당한 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은 환난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돈, 건강,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생 돈과 사람과 건강을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환난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



진정한 깨달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많은 말씀 양육을 받습니다.

예배로, 묵상으로, 제자훈련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관계들속에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

“말씀에 순종하는 나”

“이웃을 사랑하는 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삶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깨달음’이 됩니다.

- 히스토리 카툰 이정한 작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의인이 행한 대로 행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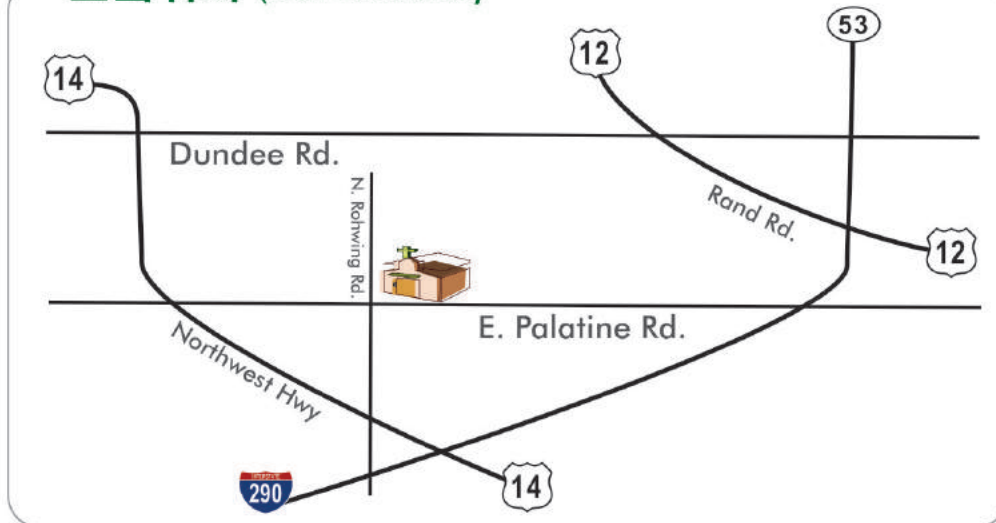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